

# 민주당, 순천에 소병철 전략공천 할까

### 광주 가능성 사라지며 고향 출마설 ‘술술’

### 지역구 분구 되면 연착륙...안되면 ‘복잡’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고향인 전남 순천 선거구에 전략공천될지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구획정에서 순천이 분구될 경우 소 교수가 순천에 연착륙 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처럼 단일 선거구가 유지되면 전략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순천 출신의 소 교수는 광주제 일고와 서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이후 전관예우 관행을 끊기 위해 대형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함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고 농협대와 순천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써 왔다.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이나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광주와 전남은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그의 향방에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소 교수가 인재영입 4호로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략공천설도

흘러나왔다. 대상 지역은 광주와 순천이었다.

그는 고향이 순천이지만 광주일고를 졸업한 연고도 있고, 민주당이 소 교수 영입을 발표하기 전 광주의 한 지역구에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 출마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소 교수의 출마 가능성이 접쳐지던 광주의 동남을, 북갑, 북을 등 3곳을 경선 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이후 다양한 언론 등을 통해 소 교수의 순천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왔고 이를 증명하듯 소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에서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더 보람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바람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바람에도 소 교수의 순천 전략공천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먼저 순천이 분구가 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곳은 소 교수에게 전략공천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다른 지역구에 경선시키는 방법 등으로 쉽게 후보 간 교통신리를 할 수 있다.

순천은 현재 분구대상 선거구



중 한곳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분구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분구가 안 된 상황에서 소 교수를 전략공천 한다면 총선준비를 해 온 지역 후보들은 물론 시민들의 반발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순천은 현역의 이정현 의원이 순천 출마를 포기한 ‘무주공산’의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민주당 지지율을 보이는 지역 정치인 ‘민주당 공천=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소 교수의 전략공천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분명히 반대하는 쪽도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전략적인 선택을 해온 순천지역의 정치 의식을 볼 때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전략공천을 예전처럼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은 확실히 줄었다는

## 안철수 공약...중학생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2세미만으로 낮추겠다”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 준비위원장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및 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

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형기를 마쳐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날로 확산해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수사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신설 및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소지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중앙당이 높은 지지율에 취해 자칫 무리한 전략공천을 할 경우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이는 곧바로 민주당이 구상하는 전체 선거구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소 교수는 “순천이 단일 선거구로 묶일 경우에도 전략공천을 요청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순천은 현재 김영득 팔마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국회의원,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공천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및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주승용 국회의부의정실에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 범여권 “미래통합당은 색깔만 바꾼 ‘핑크 새누리당’”

### 민주 “돌고 돌아 도로 새누리...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해야”

### 대안 “색깔 바꾸기로 국정농단 세력 포장하기 바빠”

진보·중도개혁 진영 범여권은 17일 출범하는 보수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한 데 대해 축하를 해야 하는데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참담하다”며 “새 인물, 새 비전이 안보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고 돌아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국당은 반복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며 국민들의 시선을 끌기보다는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은 출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안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의 장본인들임에도, 지금까지 국민이 요구한 보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아무런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무능과 구태가 통합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안신당의 최경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품수와 색깔 바꾸기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을 포장하기 바쁘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색으로 분홍 계열의 ‘해피 핑크’를 택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대안신당은 이날 오전 김정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도 “당 색깔만 레드(빨강)에서 해피 핑크(분홍)로 바꾼다고 새로운 당이 되는 것 아니다”라며 “건전한 보수는 바람직하지만 미래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의 원죄를 어떻게 씻어낼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실은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집 나간 인사들이 회초리 맞고 되돌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미래통합당을 격려했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 출범은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추진되었던 개혁 보수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미래를 위한 성찰과 비전도 내놓지 않았다.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 바른미래 의원들, 손학규에 ‘최후통첩’

### 오늘 비례대표 제명 추진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3당 통합을 거부한 데 대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선·주승용·김동철·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 의원은 17일 주승용 국회의부의정실에서 만나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제명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하게 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의원이 되고, 당에서는 다음 순번 비례대표가 승계할 수 없게 된다. 손 대표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요구해 온 제명 조치를 거부해 왔다.

의총을 통해 모든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가 이뤄지면,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 결행 여부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순식간에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